

도쿄패럴림픽 출전 광주시청 장애인탁구 서수연

“리우 은빛, 도쿄 금빛으로 바꾼다”

의료사고로 모델 꿈 접고 새 인생
첫 출전한 리우대회이쉬운 은메달
손과 라켓 봉대로 묶고 맹훈련
후회없는 경기로 금빛 스매싱 다짐

장애인 탁구대표팀의 간판 서수연(35·광주시청)이 생애 두 번째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금빛 스매싱'을 날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수연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결전지'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첫 출전 대회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은 매우 떨려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했다"며 "이번 대회는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고교 재학 시절 서수연의 꿈은 모델이었다. 큰 키와 당당한 성격, 밝은 표정을 갖고 있던 서수연은

대학 입학 후 본격적으로 꿈을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서수연은 쓰러졌다.

그는 목포해인여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한 지난 2004년 자세 교정 차 병원을 찾았는데, 주사 치료를 받다가 신경과 척수에 문제가 생겨 하반신이 마비됐다.

모델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서수연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재활 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러다 탁구를 시작했고 장애인 탁구 선수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사고 여파로 악력이 약한 탓에 탁구 라켓을 꼭 쥌 수는 없었지만, 손과 라켓을 봉대로 감고 많은 땀을 탁구대에 쏟아냈다.

서수연은 악바리처럼 운동에 매진해 장애인 탁구 최정상 자리에서 올랐다.

그녀는 2013년 국가대표로 선발,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땀과 지남해 형 가리-이탈리아 오픈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처음 출전한 2016 리우 패럴림픽 대회에선 여자 단식 은메달

을 차지했다.

당시 서수연은 중국 선수 리우 징과의 결승전, 8차례의 듀스 플레이를 거친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값진 메달을 따냈다.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서수연은 경기 후 평평 눈물을 쏟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서수연은 지난 5년 동안 리우 패럴림픽 결승전을 곱씹으며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했다.

공황에서 만난 서수연의 얼굴엔 비장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몸무게를 많이 감량했다"며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패럴림픽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도쿄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은 서수연을 포함한 선수 86명, 임원 73명 등 총 159명이 선수단을 파견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휠체어 탁구 국가대표 서수연이 훈련 중 라켓을 손에 묶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2020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출국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패럴림픽 선수단 “도쿄 감동 잇자”

탁구·수영·사격 등 13명 출격
24일 개막...한국 대표팀 출국
14개 종목서 금메달 4개 목표

광주·전남 출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쿄의 감동 재현에 나선다.

광주와 전남 출신 선수단(선수·지도자 포함) 15명을 비롯한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장애인 대표팀 선수단이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도쿄 패럴림픽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일본 도쿄 일원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광주 14명, 전남 1명을 포함 선수 86명, 임원 73명 등 총 15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은 수영, 탁구 등 45명의 선수단 본진이 출국길에 올랐다.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개 획득을 목표로 잡았다. 광주시청 탁구팀 선수 전원(6명) 포함 모두 19명이 출전하는 탁구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두 자릿수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탁구는 그간 패럴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다. 2008 베이징 대회 때는 7개(금메달 1개·은메달 2개·동메달 4개), 2012 런던 대회(금 1·은 4·동 4)와 2016 리우 대회(금 1·은 3·동 5)에서는 9개씩의 메달이 이 종목에서 나왔다.

광주시청 탁구팀 선수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에 금메달을 안길 유력한 후보다.

20년간 대표팀에서 뛰어난 김영건(37·광주시청)은 개인·단체전 메달을 노리고 있다. 처음 패럴

림픽에 나선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탁구 개인 단식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그는 런던 대회에서 개인 단식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추가했고, 리우 대회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기원(56), 김정길(36), 김성욱(55·여), 박진철(40), 서수연(35·여)도 아시아게임, 리우패럴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자들로 메달권 진입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양궁에서는 조장문(56·여), 김옥금(62·여), 김란숙(55)이 안산이 일궈낸 양궁 신화 잇기에 나선다.

전남 사격연맹 소속 이윤리(47)는 유일한 전남 출신 선수로 출전한다.

그는 최근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기 및 중별선수권대회 겸 2021년 국가대표 1.2차 선발전 소총 50M 3자세에서 1165점으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이윤리는 지난 2019년 같은 부문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1157점)을 경신하는 등 최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2008 베이징패럴림픽 50m 소총 3자세 금메달,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 게임 10m 공기 소총복사 금메달, 2016 리우패럴림픽 50m 소총 3자세 동메달을 따내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서용규 수석부회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3관왕을 달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2개가 광주의 탁구일 정도로 광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광주시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PGA 플레이오프 진출 김시우·임성재·이경훈 “최종전까지 가겠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한국 선수 3명이 '최종전'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위명이 출전하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는 김시우(26·30위), 임성재(23·31위), 이경훈(30·34위)이 진출했다.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는 오는 20일(한국시간) 나흘간 미국 뉴욕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파71·7410야드)에서 열린다. 노던 트러스트에서 상위 70명에 든 선수들은 BMW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BMW 챔피언십 결과 최종 상위 30명은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다.

PGA 투어 인터뷰에서 김시우는 “올해는 지금까지 우승도 하고 잘했기 때문에 꼭 투어 챔피언십에 가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6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뛰는 김시우는 “자분히 1년 동안 잘해서 플레이오프에 갈 기회를 얻어서 좋다”며 “올해는 꼭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임성재도 “제가 이제 딱 30위 근처에 있어서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2개 대회에서 잘해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며 “투어 챔피언십에 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투어 챔피언십 무대에 올랐던 임성재는 “(3회 연속으로 출전하면) 너무 큰 의미다. 한 해 3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올해까지 들어가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경훈은 “PGA 투어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감사하게도 3년 내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어서 기분 좋고 감사하다”며 “올해 잘해서 30위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시우는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면 다음 시즌 대부분의 대회와 메이저대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받는 것이 매력이라면서 “그래서 모든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는 1500만달러(약 175억원)의 보너스 상금을 받는다.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해도 39만5000달러를 확보한다.

BMW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선수는 최소 14만달러, 노던트러스트에 출전하는 선수는 최소 10만 1000달러를 받는다. /연합뉴스

NBA 엠비드, 2300억 초대형 연장 계약

필라델피아서 4년 더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센터 조엘 엠비드(27)가 4년간 약 2300억원을 받는 초대형 연장 계약서에 사인했다.

필라델피아는 1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엠비드와 4년간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팀 정책에 따라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이미 AP통신 등 외신은 필

라델피아와 엠비드가 4년간 1억9600만달러(약 2300억원)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엠비드는 2018-2019시즌을 앞두고 필라델피아와 5년 1억4800만달러의 계약을 했던 터라 이번 새 계약은 2023-2024시즌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엠비드는 2026-2027시즌까지 필라델피아에서 뛸 수 있게 됐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입단한 엠비드는 부상으로 두 시즌을 통

째로 날렸으나 이후 리그 최정상급 센터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2020-2021시즌에는 정규리그 51경기 출전해 평균 28.5점 10.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덴버 너기츠의 센터 니콜라 요키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엠비드의 활약을 앞세워 필라델피아는 49승 23패의 성적으로 20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싱크홀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울드, 퍼피 구조대 더 무비
- 4관 싱크홀
- 5관 싱크홀
- 6관 인질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커풀 울드, 프리 가이, 남색대문
-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